

하천오염 주범... 찌꺼기도 걸러 버려야



◇수질오염 원인은 생활하수이다. 한강을 깨끗하게 하는 폐하수중 생활하수 비중은 72%나 된다고 한다. (사진은 한강쓰레기 조사장면)

생활하수

전통적으로 사찰에서는 바루공양을 통해 음식물의 찌꺼기가 남으면, 그것을 다시 깨끗이 씻어 마신뒤에 맑은 청정수(淸淨水)만을 하수에 버리는 간소한 생활을 해왔다. 음식물의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에 관해 아들의 살고기(子肉)의 비유로서 말씀하셨다. 어떤 부부가 귀한 외아들과 함께 사

막과 같은 황야로 길을 떠났다. 그러나 드넓은 황야를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양식이 다 떨어져 모두 기아와 굶주림에 죽게 되었다. 두 부부는 셋이 모두 죽지 않기 위해 사람스럽고 귀여운 어린 외아들을 죽여 그 아들의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외아들이 어디있느냐' 하고 통곡하며 아들의 살코기를 먹었다. 모든 음식에 대해 애민(愛愍)한 마음으로 단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원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생명체의 일부인 음식만을 덜어서 바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재성 18

루에 담아 찌꺼기를 남김없이 청정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생활문화를 이루어왔다.

뿐만 아니라 바루공양시 버리는 물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하수에 살

수로 변화시키는데, 우리에게도 언제 부턴가 이 양이 많아질수록 문명의 척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인은 수세식 화장실 일회 사용시 평균 23l의 물을 쓰는데, 한국인은 평균 6l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물은 크게 오염되어 수생생태계를 파괴시킨다. 생활하수가 하천이나 호수에 다량 유입되면, 그것을 영양원으로 하는 조류(藻類)나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상발생하여 부영양화된다. 부영양화는 영양분이 풍부하기가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오해이다. 자연의 청정수에 가장 많은 산소가 용존되어 있는데, 물이 오염되어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하면, 조류나 플랑크톤이 이상 발생하여 수중의 산소를 소

바루공양등 사찰생활 수질보호 '모범'

고 있는지 모르는 욕은 바늘구멍만하고 목욕하는 집채만한 아귀가 하수에 버려진 음식찌꺼기에 목이 막혀 죽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원생활에서의 생명에 대한 경외는 자연의 수질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생명체에 대한 경외는 산업사회에서 사라진지 오래되며, 특히 그 때문에 발생하는 현대인의 생활하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현대에는 도시인 한 사람당 하루에 300l의 물을 사용해 청정수를 오락

을 쓰니까 미국보다 덜 문명화된 나라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척도가 오늘날 환경재난의 비극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조사에 의하면 한사람이 하루에 반찬짓은 물, 기름, 설거지물, 세탁한 물, 동물, 오줌물, 합성세제물, 밀짚은물, 목욕물, 때묻은 물, 자동차 세척한 물, 음식찌꺼기물, 비눗물 등의 생활하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이 무려 청정한 물 10톤을 BOD 8ppm의 오락수로 비준다고 한다. 이 청정도의 오락

수로는 공업용수로도, 생물이 살기에 도 부적합한 물이다.

모하여 산소결핍증상이 생겨나면서 BOD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 조류나 플랑크톤은 물론이고 물고기도 폐죽음을 당하게 되고,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새들도 죽으면서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된다. 그렇게 되면 하천이나 호수는 자정능력이 상실되고 부패와 악취의 죽은 생태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대도시를 흐르는 모든 지천들이 물론 산업폐수의 영향도 있지만, 생활하수로 인해서 악취나는 죽은 하천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신라 9산선문 그 사상의 맥을 찾는다

광주불교교육원 문화강좌·유적답사

한국불교사의 큰 분수령이 된 선종의 사상과 문화를 9산선문(九山禪門)의 역사적 배경과 유적답사를 통해 알아보는 불교문화강좌가 열린다.

광주 최초의 불교 사회교육기관인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지선)은 남도불교문화연구원(회장 이승규)의 도움으로 우리문화의 숨결을 바로 알고, 잊혀져 가는 민족문화의 맥을 찾아가는 '선종산문 그 사상과 문화의 접목' 주제의 불교문화강좌를 마련한다.

△8월 2일에는 신라시대의 초전(初傳) 선의 특징을 알아보는 '화엄사상과 전사상'(최성렬 조선대학교수) △9일 9산선문의 형성배경을 밝히는 '신라시대 사회와 선종 산문의 성립'(이계표 광주대강사) △16일 '선종과 철학의 등장'(정선종 광주시 문화재단위원) △23일 슬라이드로 보는 '선종 산문을 찾아서'(정선종)에 이어, 27일에는 호남지역의 선종 산문을 찾아 유적답사를 떠난다. 답사지로는 지리산 실상사, 곡성 태안사, 장흥 보림사, 화순 쌍봉사 등이다. (062)228-9098.

함양의 휴가를 山寺서 보덕사 명상수련원 열어

온종일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학생, 승려를 꿈꾸는 바른 일상의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방학과 휴가.

이 함양같은 휴가기간에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떠나 자연을 벗삼아 지친 심신을 가다듬는 것도 좋지만 며칠만이라도 산사에 묻혀 자신을 탐구해보는 것도 보람된 휴가를 보내는 방법일 것이다.

강원도 영월에 자리한 보덕사가 오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위빠사나 명상수련원을 개원하고 단체나 개인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기간은 20일간이지만 하루를 잊어도 무방하다. 단지 오후불식과 묵언을 통해 고요한 명상에 잠기고 싶은 사람이면 된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예불과 경행, 좌선이 반복되는 하루. 그 속에서 참가자들은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0373)374-3169

"진기한 보물 보러가요"

95 여름박물관 교실

스스로 X세대임을 자처하며 서구화돼가는 우리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더욱 질실해져 가고 있는 역사와 전통문화의 식 고취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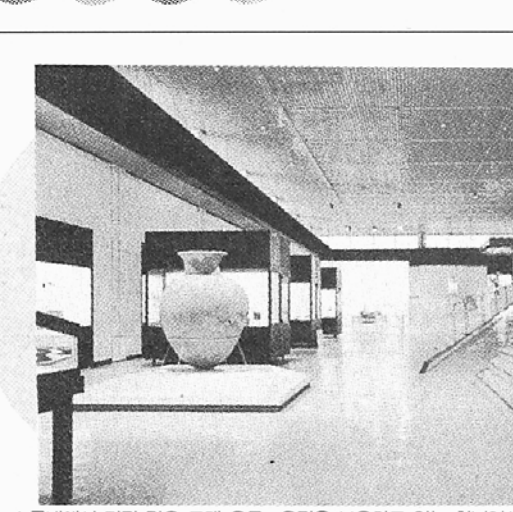
국립박물관이 이런 시대의 우려를 씻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우리의 전통양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중앙박물관과 각 지방박물관에서 95여름박물관교실의 문을 연다.

박물관교실은 강의와 전시실 학습, 도자기 만들기 실습, 유적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초·중·고등학생을 기다리고 있다.

국교대상은 7.18~8.4일까지, 중학생 대상은 7.24~28일까지 박물관 교실이 열린다.

이번 박물관교실은 경주, 광주, 부여 등 지방에 따라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교실을 비롯해 해 각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방학을 맞아 지방 나들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02)739-3872, 738-3800

신행수첩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대 유물·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천년역사의 경주. 각종 국보 및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은 경주의 또다른 자랑거리다. (사진은 국립경주박물관 전시실)

"불교는 쉽고 친근한 것" 대구불교교육원 특강

많은 일반인들은 흔히 불교를 이해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또 시대와 맞지않는 부분이 많다고도 한다.

대구불교교육원이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유명스님들과 불

교학자를 초청, 직장인과 대학생 대상으로 불교 기본교리를 시대적 감각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특별강좌를 마련한다.

불타의 생애와 사상, 불교문화, 미륵·정토사상, 불교복지론 등의 강좌가 불교를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이해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질곡속에

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강의를 듣는다면 보다 폭넓은 불교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053)253-7063

'어머니의 숨결' 사찰음식 BBS 문화센터 김치보다는 치즈, 햄버거, 피

'삼품참사' 관련 월주스님 성명서

— 생명존중·인간중심 가치관이 확립되는 공동체사회를 위하여

삼품백화점 붕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함께 명복을 빌며, 하루하루 고통속에 지내고 있는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제발 보살님께 기원합니다.

본 중단은 '희생영가천도 초재'를 지냈고, 오늘 2재를 맞이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번 사고가 우리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중증무진의 연기관계에 있는 이 사회의 공체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점에 더욱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대형참사는 하나같이 인간의 교만과 탐욕심이 일으킨 인재(人災)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와 법칙과 생명존중의 가르침이 물질만능의 가치관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서로가 하나임을 깨닫는 동체대비행만이 이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불교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이끌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마음속 깊이 참회합니다.

□기업가들의 사회윤리회복을 촉구합니다

기업가들은 너와 내가 서로 의지하고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연가법을 깨달아 배급주의, 불신중조, 인간경시중조, '빨리빨리' 병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회공공체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사회적 윤리회복을 촉구합니다.

□공직자들의 일대 반성을 촉구합니다

공사의 설계, 기공, 감리상의 부실, 무리한 증액, 불량자재 사용, 행정관청의 감독 및 안전진단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이번 참사를 관계 공직자들은 뼈아픈 자성과 값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본인은 6.27선거 이후 선거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다고 한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참사로 심화된 민심이반을 하루속히 극복하도록 촉구합니다.

□정치권리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정파이기의 소모적 무한 정치투쟁과 지역할거주의를 지양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룩해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하기 바랍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삼품 붕괴사건에 따른 구조적인 병폐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재난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위재난관리법'안을 검토하고 부실건설과 관리의 불철저함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삼품붕괴사건을 계기로 본 중단은 앞으로 재년에 대비한 자원봉사 조직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합동 위령재를 7월19일에, 천도 49재를 8월16일에 봉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불보살전에 기원합니다.

"하늘천, 따지..." 힘찬 메아리 범왕사 어린이 한자교실

"하늘천 따지 김을현 누룩 황..." 고사리불자들의 천자문 읽는 소리가 정겹다.

해인사 대구포교당 범왕사(주지 실상)는 여름방학을 맞아 하여 어린이 한자교실을 연다.

법당에 모셔둔 부처님을 호호 웃게 만들 이번 한자교실은 바람직한 세계화는 '온고이지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듯.

중고등학생이 되어도 신문이나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현세태를 볼때 어린이 한자교실이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053)766-3747.

강좌는 오는 19일 2시. (02) 245-0904

우란분절

에수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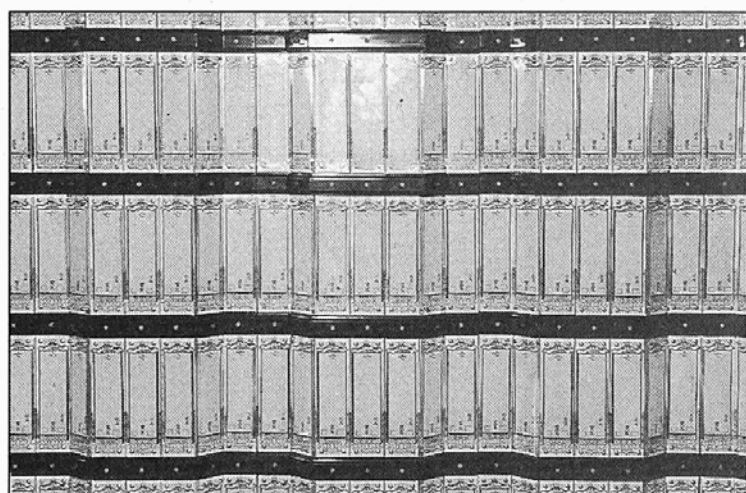
영구위패영가단 설치안내

아직도 영단때문에 고민하세요? 이제까지 이런 제품은 없었습니다.

여기 영가 한등 한등에孝와 魂을 담아 古典과 現代를 잘 접목시켜 장엄하며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정성스럽게 제작된 조립식 신개발 특허품입니다.

특징

- ① 한위 한위에 한등처럼 불을 밝혀 장엄합니다.
- ② 전구는 반도체로서 반영구적이며 단전이나 위험성이 없습니다.
- ③ 조립식이므로 中, 小, 大 劃 및 포교원등 어떤 형태에도 쉽게 설치합니다.
- ④ 영단 위치에 따라 上, 下, 左, 右로 얼마든지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 ⑤ 名山大刹이라도 영단은 취약하므로 본제품 설치시 모양이 미려하여 발당분위기가 달라집니다.
- ⑥ 색상은 2종류(밤색, 하늘색)가 있습니다.



<영구위패 영가단 설치전경과 견본>

편리성

- ① 영구 위패는 안으로 끼고 행사시(우란분절, 예수제일, 지장기도)도 밖으로 끼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 ② 생축(설판자, 축원기도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이동설치도 가능하며 강소를 적게 차지합니다.

권般若院

■ 전시장: 서울 조계사입구 상운중심 2층
전화:(02) 725-0250(대), 501-1300(야)
■ 부산: 전화:(051) 759-1746
휴대폰:011-224-9642 / 호출:015-554-9642

서울 도선사의 1027곳에 설치하여 많은 성원과 호평을 받았으며 현재 계속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제작에 자문과 협조를 주시고, 본제품을 설치하여 애용하여 주신 주지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